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을 통해서 본 四象人 病論의 접근

金江山* · 宋一炳**

1. Purpose

We know that Sasang Constitution is decided by difference of Sung-Jung(性情). Lee je-ma emphasized that Sa-Sim-Sin-Mul(事心身物) and Sung-Jung is important key. So, this paper is to kn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symptoms also is explained by Sa-Sim-Sin-Mul and Sung-Jung, to find sequence between Sung-Jung and symptoms.

2. Method

Through the Sa-Sim-Sin-Mul, decision of Sasang constitution and physiologies of Jang-Bu(臟腑), each the interior-exterior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symptoms were researched.

3. Results

It is found tha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ior-exterior, in-out(內外), upper-down(上下)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Warm-Hot-Cool-Cold(寒熱溫涼), ascent-descent-unfast-fast(升降緩束), large-small(大小) are based on Sung-Jung and the summarizing spirit Sa-Sim-Sin-Mul.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4學年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초 록

1. 연구목적

四象人은 性情의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서 東武 선생의 事心身物정신과 性情이 四象人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四象人의 病證論 또한 性情과 事心身物정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과 四象人 판별을 위한 性情과 病證의 일관성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2. 연구방법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나고 있는 事心身物정신, 四象人 결정과정,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등을 통해 四象人別 表裏病證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四象人의 表裏病證이 性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四象人 결정에 있어서 性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인체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表裏, 內外, 上下와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寒熱溫涼, 升降緩東, 大小 등이 모두 性情과 事心身物정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 서 론

東武 선생의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韓醫學(四象醫學)을 기존 韓醫學과 비교하면서 특징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心身醫學”이라는 것이다. 기존 韓醫學이 몸중심의학이었다면, 四象醫學은 인간중심의학이다. 여기에는 東武 선생이 儒學者였고 儒學을 하였기 때문에 人間에 대한 窮理가 의학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며,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에 그 내용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 보면 “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 偏着者 爲病而但知 脾胃水穀 風寒暑濕 觸犯者 爲病故”라 하여 東武 선생은 질병의 원인으로 人間事에서 일어나는 喜怒哀樂의 偏差를 중요시 여기고 있

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象人의 臟腑大小가 발생하는 이유도 喜怒哀樂 性情의 특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四象人 별로 性情의 독특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四象人 특징이 위와 같은 性情의 偏差에 의해 규정지어지기 때문에 體型氣象, 容貌詞氣, 生理, 病理 또한 性情의 偏差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 東武 선생이 말하는 性情의 특징은 儒學의 바탕위에 형성된 事心身物 정신과 이에 따른 形象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는 四象人 구별을 위하여 병증과 체형, 성격 등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東武 선생이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四象人의 病證論에 대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事心身物

東武 선생의 인간과 인간세계에 대한 이해는 儒學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내용은 “事心身物”이다. 事心身物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 (1) 事 : 身이 物에 개입되었을 때
- (2) 心 : 나의 내적인 주체
- (3) 身 : 나의 외적인 주체
- (4) 物 : 나 이외의 것.

위와 같은 事心身物 정신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공간적 구분’이다. 즉 나와 외부세계에 대한 구별이다. 여기에서 주체는 ‘나’가 된다. 내가 있어야 物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이다. 心身으로 나를 규정짓고 物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중요한 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 두가지 의미를 종합하여 事心身物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음(心)이 있는 다음에 몸(身)이 있게 된다. 몸이 갖추어지면 나와 외부세계(物)가 구별된다. 그리고 心身은 외부세계(物)와 관계(事)를 맺게 된다. 관계(事)는 다시 心身に 영향을 주어 상호영향을 주게 된다. 상호작용의 주체는 心身이 된다. 이를 東武 선생은 心을 ‘太極’이라 하였고, 心身을 ‘兩儀’라 하였으며, 心身事物을 ‘四象’이라 하였다. 東武 선생은 事心身物이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라 본 것이다.

2. 性命論 내용

性命論의 의의는 東武 선생의 事心身物 정신이 의학과 접목되었다는 것이다. 性命論은 4단구조로 되어 있다. 天機, 人事, 知, 行이 곧 事心身物이 되며, 이는 구조에 해당한다. 동시에 天機, 人事, 知, 行에 각각에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事心身物에 해당한다. 事心身物은 구조에 대한 내용도 된다. 東武 선생은 事心身物로 구조와 내용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인체에 접목하였다. 따라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 또한 事心身物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天機	天時	世會	人倫	地方
	耳	目	鼻	口
人事	事務	交遇	黨與	居處
	肺	脾	肝	腎
知(性)	壽策	經綸	行檢	度量
	頷	臆	膽	腹
行(命)	識見	威儀	才幹	方略
	頭	肩	腰	臀

天機는 物에 해당한다. 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 이외 존재하는 것이다. 즉, 나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天機의 내용을 보면 天時, 世會, 人倫, 地方으로 순차적인 개념이다. 모두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있는 곳이 地方이고, 地方과 地方이 모이면 人倫이 나오게 된다. 人倫과 人倫이 부딪치는 곳이 世會이며 世會는 天時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地方은 心, 人倫은 身, 世會는 事, 天時는 物에 해당한다. 신체에 있어서는 耳目鼻口가 天機에 해당하는데 耳目鼻口는 나외의 것을 관찰하는

도구가 된다.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 “太陽之耳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라 하여 天機에 해당하는 ‘耳’가 察하는 대상은 나이외의 ‘衆人’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나 이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天機는 ‘大同’하다고 했다.

人事는 事에 해당한다. 事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心身)가 物에 개입된 것을 뜻한다. 그 내용을 보면 事務, 交遇, 黨與, 居處로 내(心身)가 장소(天機, 物)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事)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地方에서 居處가 나오고, 黨與에서 人倫이 나오고, 世會에서 交遇가 나오고, 天時에서 事務가 나오게 된다. 신체에 있어서는 肺脾肝腎이 人事에 해당한다. 事는 내가 개입된다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라 하여 ‘脾’가 行하는 것은 ‘別人’과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東醫壽世保元에 人事는 ‘各立’하다고 나와 있다.

知는 性에 해당한다. 性은 나의 본질이며 곧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며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다. 이 4가지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항목이 되며 덕목이 되는 것이다. 내용이 아니고 구조이다. 이 또한 事心身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신체에 있어서는 額臆臍腹이 해당되는데, 額臆臍腹은 신체에서 內, 裏, 陰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속에는 胃脘, 胃, 小腸, 大腸이 들어있다. 東醫壽世保元에 知는 ‘博通’하다고 나와 있다. ‘博通’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行은 命에 해당한다. 命은 知(性)에 그 바탕을 두고 외부로 나타나는 나의 특성을 뜻한다. 그 내용을 보면 識見, 威儀, 才幹, 方略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나의 특성이다. 知(性)를 그릇으로 본다면 行(命)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릇은 누구나 있는 것이지만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내용도 다르다는 것이다. 신체에 있어서는 頭肩腰臀에 해당되는데, 頭肩腰臀은 신체에서 外, 表, 陽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사람의 勢를 볼 수 있는 곳이 되며, 그 속에는 腦, 背脊, 腰脊, 膀胱이 들어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 東武 선생은 四象人의 氣勢를 설명하면서, 少陽人은 胸襟之包勢盛而膀胱之坐勢孤弱이라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 行은 ‘獨行’하다고 나와 있다. ‘獨行’이라는 것은 그릇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3. 四象人 臟腑大小

東醫壽世保元 四端論과 擴充論에 보면 四象人 臟腑大小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東武 선생의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人의 臟局大小는 喜怒哀樂 四氣에 의해 결정이 된다. 喜怒哀樂 四氣 가운데 哀怒는 上升之氣이고, 喜樂은 下降之氣로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氣이며, 性氣와 情氣로 다시 나뉘게 된다. 性氣는 天機인 耳目鼻口로 내가 세상을 察하는 것이며, 情氣는 人事인 肺脾肝腎으로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性氣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情氣는 관계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性氣와 情氣의 작용양식은 다음과 같다.

性氣	氣注	益盛	○大	耳目鼻口	察	天機 世會 人倫 地方	내가 衆人을
情氣	氣激	益削	○小	肺脾肝腎	行	事務 交遇 黨與 居處	別人이 나를

이를 보면 性氣의 작용대상 안에는 ‘나’가 없다. 情氣의 작용대상은 궁극적으로 ‘나’이다. 四象人 臟

(1)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2)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太陽人	<p>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p> <p>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已也 怒情 非他 怒也</p>
少陽人	<p>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p> <p>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已也 哀情 非他 哀也</p>
太陰人	<p>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p> <p>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已也 樂情 非他 樂也</p>
少陰人	<p>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p> <p>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已也 喜情 非他 喜也</p>

局的 大小를 결정짓는 과정에 있어서 性氣는 大를 결정짓고 情氣는 小를 결정짓게 된다.

性氣는 '나'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 내재된 일정한 경향성으로 한가지로 꾸준히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발달되게 된다. 이것이 "氣注"가 되고, 大한 臟局을 형성한다. 따라서, 四象人을 변별하기 위한 질문에 있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묻게 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가령, 다른 사람의 특징을 살필 때 나쁜점을 먼저 찾으려 하는가, 좋은 점을 먼저 찾으려 하는가, 또는 무엇이 먼저 눈에 띄는가 등의 질문은 性氣를 살피는 것이다.

情氣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다. '관계'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이 情氣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내부에 일어나는 四氣의 즉각적인 반응성이다. 이것이 "促急"이다. 性氣의 경우 각각의 특성이 있는 반면에 情氣의 경우 모두 "促急"이라 한 것은 情氣가 性氣와 달리 해당하는 臟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하

고 있는 것이다. 氣의 불안정성으로 반응하는 氣가 불안해지므로 해서 반대되는 氣가 약해지는 것이다.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한다. 哀怒가 上升之氣(陽)에 해당하고, 喜樂이 下降之氣(陰)에 해당한다. 哀氣와 樂氣가 반대되고, 怒氣와 喜氣가 반대된다. 哀氣가 激하면 樂氣가 깎이고, 樂氣가 激하면 哀氣가 깎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氣激"이 되고, '氣注'가 한가지 해당 臟局을 大하게 하는 것과 달리 '氣激'은 상대되는 臟局을 깎아 小하게 한다. 가령 四象人 변별을 위한 질문을 할 때 논쟁을 잘 하는가, 화를 잘 내는 편인가, 조직생활을 잘하는가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한 것은 情氣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사항이 하나 나온다.

四象人 특성에 있어서 같은 性氣와 情氣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喜怒哀樂 四氣가운데 哀怒之氣는 上升之氣로 陰陽가운데 陽으로 볼 수 있고, 喜樂之氣는 下降之氣로 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陽

人 즉 太陽人과 少陽人은 哀怒之氣가 발달하고, 陰人 즉 太陰人과 少陰人은 喜樂之氣가 발달하게 된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로 太陽人의 哀性和 怒情을 설명하고 있다. 太陽人은 기본적으로 哀怒之氣가 발달하였고, 哀怒之氣 가운데 哀氣는 性氣이고, 怒氣는 情氣이다. 바깥세계를 바라보는 경향성은 肺局이 먼저 움직이고, 관계에 대한 반응은 脾局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肺局은 性氣와 관계가 있고 情氣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情氣는 당연히 脾局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四象人별로 性情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과정에서 얻게 되는 四氣이다. 음식물이 胃로 들어와 停蓄되어 熱氣가 발생하고, 胃脘의 上升之力에 의해 발생된 熱이 위로 올라가 溫氣가 된다. 溫氣가 없어진 음식물이 胃에서 小腸으로 내려와 小腸의 消導之力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冷氣가 형성되고, 남은 찌꺼기가 大腸으로 내려가면서 寒氣를 형성하고, 大便을 형성하여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水穀之道인 胃脘, 胃, 小腸, 大腸에 각각 寒熱溫涼 四氣가 형성된다. 四氣는 다시 위에서 말한 해부학적 구조를 橫的으로 순환하면서 인체에서 필요한 津膏油液, 臟膜血精을 생성하면서 해당 부위를 자양시킨다. 여기서 四氣의 순환이 橫的으로만 이루어 진다면 인체에는 四氣가 석일 수가 없는 문제점이 남게 된다.

4. 人體 生理

東武 선생은 인체 生理를 설명하는데 四焦, 四黨, 四海를 수단으로 하였다. 여기에 크게 두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해부학적인 것과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東武 선생은 인체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上焦	肺黨	肺	胃脘(頤)	舌	耳	頭腦(頭)	皮毛
中上焦	脾黨	脾	胃(臍)	兩乳	目	背脊(肩)	筋
中下焦	肝黨	肝	小腸(臍)	臍	鼻	腰脊(腰)	肉
下焦	腎黨	腎	大腸(腹)	前陰	口	膀胱(臀)	骨

기능적인 측면은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四氣라 하는 寒熱溫涼과 升降緩束이다.

寒熱溫涼은 水穀이 들어와 소화, 흡수, 배설되는

胃脘	胃	小腸	大腸
上升之力	停蓄之力	消導之力	下降之力
溫	熱	涼	寒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都數 停蓄於胃而 蒸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			

四氣의 縱的인 순환이 바로 升降緩束이다. 升降은 寒熱과 관련이 있고, 緩束은 溫涼과 관계가 깊다. 즉, 大腸의 寒氣는 올라와서 데워져야 하고, 胃의 熱氣는 내려가서 식혀져야 한다. 大腸에서 寒氣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면 寒氣가 부족하여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며, 寒氣가 지나치면 차게 굳어서 올라올 수 없다. 胃에서 熱氣가 지나치면 식지 않아 내려가지 못하고, 熱氣가 부족하면 식어서 내려가게 되어 寒氣를 키우게 된다.

緩束은 溫涼과 관계있다. 溫은 胃의 熱氣중 가볍고 맑은 것으로 멀리 퍼져야 한다. 涼은 小腸의 消導과정중에 생성된 氣다. 東醫壽世保元에서 小腸의 구조를 말하기를 “小腸之體 狹窄而屈曲故 水穀之氣 消導也”라 하였다. 冷氣는 완만한 消導과정하에서 형성된다. 緩束은 溫氣의 완만한 퍼짐과 冷氣의 완만한 형성을 뜻한다. 따라서, 升降緩束은 인체에서 四氣가 寒熱, 溫涼에 따라 나타나는 縱橫인 운동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東醫壽世保元東武·四端論》에서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라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水穀과 氣液은 寒熱溫涼, 升降緩束과 함께 장부의 생리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脾腎에서는 음식을 받아 들이고 大便을 형성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寒熱, 升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胃受熱裡熱病論》에 “胃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頭面四肢則 成上消病. 大腸局清陽 上升而 不快足於胃局則 成中消病”과 《東醫壽世保元·胃受寒裏寒病論》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病機의 중심에 胃와 大腸이 있다는 점이다. 胃와 大腸은 각각 脾와 腎의 腑에 해당한다. 즉 胃와 大腸이 水穀 出納의 府庫이면서, 寒熱생성과 관련이 있고, 四氣가운데 升降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肺肝은 음식물이 출입하는 과정 즉 脾腎의 중간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肺는 가벼운 溫氣를 氣화시켜 멀리 퍼뜨리는 것이고, 肝은 小腸의 消導과정에서 발생된 涼氣를 液化시켜 저장하는 것이다. 升降이 아닌 緩束이 관건이 된다. 늘어져 퍼져 있는 것은 묶어주어야 하고(束), 묶어서 퍼지지 못하는 것은 늘어뜨려 주어야(緩) 한다. 이는 四象人 完實

無病과 바로 연결이 된다. 脾大腎小한 少陽人은 大腸의 下降기능이 건실해야 하므로 大便宣通하여야 하고, 腎大脾小한 少陰人은 胃의 上升기능이 건실하여야 하므로 飲食善化하여야 하고, 肺大肝小한 太陽人은 肝의 吸聚之氣가 늘어지기 쉬우므로 小便旺多하여야 하고, 肝大肺小한 太陰人은 肺의 呼散之氣가 늘어져 있으므로 汗液通暢하여야 한다. 東武 선생은 인체에서 水穀과 氣液을 구분하여 肺肝의 기능을 呼吸氣液緩束으로, 脾腎의 기능을 出納水穀升降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東醫壽世保元·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水穀 納於胃而 脾衛之 出於大腸而 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 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 肺衛之 吸於小腸而 肝衛之.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而 迭爲進退者也”

5. 體質病證

지금까지 四象人의 臟局 大小 결정과정과 臟腑生理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四象人의 臟局 大小 결정요소가 四象人別 病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四象人 病證이 나타나는 특징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東醫壽世保元·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太陽人 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裡氣”라 하였다.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하고 怒情이 促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哀心은 性氣가 되고, 怒心은 情氣가 된다. 性氣는 表氣를 傷하고, 情氣는 裡氣를 상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臟局의 大小 결정과정과 다른 것은 “深着”과 “暴發”이다. “深着”의 字意는 깊이 달라 붙는다고, 기능이 항진됨을 의미한다. 四象人에 있

어서 性情의 편차가 臟局의 大小를 가져오지만 이때의 性情은 생리적인 특징이지 病은 아니다. 하지만, 性情이 “深着”, “暴發”하게 되면 이때는 病이 된다. 病의 정도 또한 “深着”과 “暴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太陽人 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裡氣”에는 ‘表氣’와 ‘裏氣’의 개념이 들어 있다. 性氣가 表氣를 傷하고, 情氣가 裏氣를 傷한다고 하였다. 性氣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이며, 情氣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나’를 보는 것이다. 즉 情氣는 반응에 대한 자극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 臟局의 橫的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橫的인 순서는 四腑에서 四臟으로 나간다.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肺黨인 上焦의 경우 胃脘, 舌(頤), 耳, 頭腦(頭), 皮毛·肺 순으로 나간다.

東醫壽世保元 甲午版의 篇名과 庚子版은 篇名은 다음과 같다.

版	表病		裏病	
	甲午版	庚子版	甲午版	庚子版
太陽人	外感腰脊病	外感腰脊病	內觸小腸病	內觸小腸病
少陽人	外感膀胱病	脾受寒表寒病	內觸人腦病	胃受熱裏熱病
太陰人	外感腦作首病	胃脘受寒表寒病	內觸胃脘病	肝受熱裏熱病
少陰人	外感腎病	腎受熱裏熱病	內觸胃病	胃受寒裏寒病

여기에서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外感病은 頭肩腰腎이라 할 수 있는 腦髓, 背脊, 腰脊, 膀胱에 문제가 오고, 內觸病은 頤臆臍腹이라 할 수 있는 胃脘, 胃, 小腸, 大腸에 문제가 온다. 이것을 性氣는 表氣를 상하고 情氣는 裏氣를 상한다는 것과

연결시켜보면, 腦髓, 背脊, 腰脊, 膀胱이 表가 되고 胃脘, 胃, 小腸, 大腸이 裏가 된다. 이것은 四海와도 관련이 있다. 腦髓, 背脊, 腰脊, 膀胱은 後四海가 발생하는 부위이고, 頤臆臍腹은 後四海가 발생하는 부위이다. 따라서, 四腑로부터 頤臆臍腹까지는 裏에 해당하고, 耳目鼻口부터 肺脾肝腎은 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위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頭肩腰腎은 後面으로 陽에 해당하고, 頤臆臍腹은 全面으로 陰에 해당한다.

이것을 四象人의 臟腑 大小결정과 四海 생성과정과 함께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四象人의 臟局 大小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性氣는 耳目鼻口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四臟을 大하게 만들고, 情氣는 肺脾肝腎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四臟을 小하게 만든다. 耳目鼻口는 四臟의 근본이 되고, 四臟은 四腑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性氣가 “深着”하게 되면 耳目鼻口에서 영향을 받는 四臟에 영향을 주고 四臟은 表에 위치하므로 表氣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情氣가 “暴發”하게 되면 四臟에 영향을 받는 四腑에 영향을 주고, 四腑는 裏에 위치하므로 裏氣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東醫壽世保元 甲午版 篇名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性氣 ⇨ 耳目鼻口 ⇨ 頭肩腰腎 ⇨ 四臟 ⇨ 表氣
(⇨ 四腑 ⇨ 頤臆臍腹)

情氣 ⇨ 四臟 ⇨ 四腑 ⇨ 頤臆臍腹 ⇨ 裏氣 (⇨ 耳目鼻口 ⇨ 頭肩腰腎 ⇨ 四臟)

()는 病의 진행이 심해졌을 경우를 가정해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性氣와 情氣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性氣는 耳目鼻口에 의해서 나타난다. 耳目鼻口는 안에서 바깥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나’가

아닌 세상을 관찰하는 도구이다. 항상 바깥을 향하고 있으므로 表氣라 할 수 있다. 情氣는 肺脾肝腎에 의해서 나타난다.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바깥에서 안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나'를 관찰하는 도구이다.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裏氣라 할 수 있다.

이것과 함께 또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甲午版과 庚子版의 篇名이 太陽人을 제외하고 다르다는 것이다. 甲午版에는 內外, 觸感, 四腑, 腦髓, 背脊, 腰脊, 膀胱으로 篇名을 표현하고 있는데, 庚子版에는 表裏, 寒熱, 臟腑, 受로 篇名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 寒熱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寒熱은 症狀이다. 이것으로 보아 四象人별로 寒熱이라는 症狀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東武 선생 스스로도 四象人에 대한 병리적 개념이 보다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表裏의 개념이다. 內外가 장소의 단순한 이차원적 구별 개념이라면, 表裏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층차를 가진 개념이다. 또,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지칭하고 있다. 이것으로 東武 선생이 病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臟腑를 篇名에 끌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四象人 臟局 大小의 결정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性氣가 耳目鼻口를 통해서 발현되어 四臟을 키우고 耳目鼻口는 四臟의 근본이 된다. 情氣는 肺脾肝腎을 통해서 발현되어 四臟에 영향을 주고 四臟은 四腑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증상에 있어서는 大한 臟局과 관련이 있는 것은 四臟으로, 小한 臟局과 관련이 있는 것은 四腑로 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受'라는 글자의 의미이다. '受'는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臟腑가 증상의 원인이

되어 여기에서 寒熱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病位와 증상과 원인이 되는 臟腑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性氣가 表氣를 상한다는 것은 性氣의 "深着"으로 인해 耳目鼻口에서 肺脾肝腎의 부위가 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情氣가 裏氣를 상한다는 것은 情氣의 "暴發"로 인해 四臟에서 四腑의 부위가 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庚子版의 篇名에서 나타나는 表裏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뜻하며 表氣·裏氣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寒熱은 증상을 대표하며, 臟腑는 증상과 病位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臟局을 뜻한다. 이것으로 太陰人의 篇名이 少陰人, 少陽人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일단 表病은 大한 臟局, 裏病은 小한 臟局이라는 규칙은 없다. 太陰人의 경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陰人 篇名이 少陽人이나 少陰人처럼 胃脘受寒裏寒病, 肝受熱表熱病이 아니고 胃脘受寒表寒病, 肝受熱裏熱病이 되는 것은 위에서 종합한 것처럼 太陰人의 寒證은 그 病位가 表이고 원인은 胃脘에 있으며 胃脘에서 寒證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치료와 調理의 목표점이 확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6. 少陰人

少陰人은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나누어 진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表裏, 寒熱, 胃腎이다. 少陰人 熱證은 腎, 表를 뜻하고 寒證은 胃, 裏를 뜻한다. 이를 性命論의 내용과 臟局의 大小 결정과정, 臟腑論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天機	大時	世會	人倫	地方
	耳	日	鼻	口
人事	事務	交遇	黨與	居處
	肺	脾	肝	腎
性氣 ⇨ 耳目鼻口 ⇨ 頭肩腰腎 ⇨ 四臟 ⇨ 表氣 (⇨ 四腑 ⇨ 筋脈脾胃) 情氣 ⇨ 四臟 ⇨ 四腑 ⇨ 筋脈脾胃 ⇨ 裏氣 (⇨ 耳目鼻口 ⇨ 頭肩腰腎 ⇨ 四臟)				

1) 腎受熱表熱病論

腎受熱表熱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臟局은 大한 腎局, 총괄할 수 있는 증상은 熱證, 病位는 表이다. 大한 臟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性氣인 樂性과 관계가 있다. 樂性이 注하면 결과적으로 腎이 大하여지게 된다. 性命論에서 腎에 해당하는 것은 居處이다. 따라서, 少陰人은 居處가 견고하다. 腎受熱表熱病은 바로 견고한 居處로 인해서 발생한다.

(1) 鬱狂證

樂性이 “深着”하게 되면 居處는 내가 편히 安住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나를 갇아 두는 곳이 된다. 居處가 견고하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 진다. 居處는 心身이 安住하는 곳이다. 居處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安住 또한 견고해 진다. 밖으로 나가려 해도 居處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 交遇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居處가 매우 견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格致藥에 따르면 交遇는 시장사람들이 하는 행위이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팔기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여기에는 安住가 아닌 끊임없는 오고 감이 있다. 四象人을 구별하기 위한 질문에 있어서 “번잡한 곳이 싫다”라는 질

문은 居處가 견고한 少陰人을 변별하기 위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鬱狂證은 바로 견고한 居處에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발생한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居處와 安住가 견고해서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病名도 “鬱狂”이다. “鬱”은 갇혀서 막혀 있다는 뜻이다. “狂”은 나가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미치는 듯한 증상을 뜻한다. “鬱狂”은 居處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해 미칠 것 같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熱證이 나타나는 것이다. 熱證이 나타나는 곳은 바깥이 아닌 居處이기 때문에 居處에서 熱이 난다. 그래서 “腎受熱”이 된다. 居處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鬱狂하게 되면 安절부절하게 된다. 자꾸 나가려 하는 것이다. 갈등이 곧 鬱狂이고 熱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자식이 집에서 나가려는데 부모가 방문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나가지 못하는 자식은 방안에 갇혀 답답해 하게 된다. 이 때 방안의 자식은 부모를 설득해보기도 하고, 다른 출구를 찾아 보기도 한다. “鬱狂”이 나타난다. 鬱狂은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데, 居處가 견고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나가려는 의지와 행위는 熱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熱證은 陰虛로 발생한 熱이 아니다. 이를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困熱”이라 하였다. 즉, 갇혀서 발생하는 熱이다. 鬱狂과 일맥상통하다.

鬱狂證은 熱證과 함께 無汗과 便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無汗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便秘는 腎局의 하나인 大腸의 기능이 항진되어서 발생한다. 腎局이 발달하면 腎 뿐만 아니라 大腸의 기능도 항진된다. 大腸의 기능이 견고해지면 水穀을 下降시키지 않고 가두게 된다. 大腸에서 오래 가두고 있기 때문에 大腸에서 만 들어지는 寒氣 또한 커지게 된다. 이를 《東醫壽世

保元》에서는 “外熱包裡冷”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심하면 巴豆를 사용한다. 巴豆는 極熱한 性을 갖는 약물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升陽益氣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居處에서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다.

(2) 亡陽證

亡陽證은 居處가 너무 견고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亡陽證의 경우 부모의 너무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자식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방안에 꼭 박혀 있는 것과 같다. 견고한 居處에서 나가려는 의지가 꺾인 것이다. 鬱狂證과 차이점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 자체가 꺾였다는 것이다. 꺾인 의지를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敗陽外遁”으로 설명하고 있다.

“敗陽外遁”으로 陽氣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表에 熱證이 있으면서 汗出하게 된다. 이것이 亡陽證과의 차이점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 四象人에 따라 각기 汗出有無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 太陰人과 少陰人이 반대이다. “虛汗”과 “陽剛堅密”로 표현하는데, 少陰人이 땀이 나는 것은 “虛汗”이고, 太陰人이 땀이 나지 않는 것은 “陽剛堅密”에 해당한다. 따라서, 少陰人이 熱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것은 좋지 않고, 太陰人이 땀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鬱狂證과 마찬가지로 居處가 견고하기 때문에 大腸의 寒氣도 강해지고 便秘가 있게 된다. “外熱包裡冷”도 똑같이 있게 된다. 鬱狂證의 경우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만, 亡陽證의 경우 그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病症에 있어서도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거나,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증세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는 처방은 附子이다. 附子は 極熱한 약물이다. 견고한 居處를

약화시키면서 나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복돋워 주는 약물에 해당한다.

2) 胃受寒裏寒病

胃受寒裏寒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臟局은 小한 脾局, 총괄할 수 있는 증상은 寒證, 病位는 裏이다. 小한 臟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情氣인 喜情과 관계가 있다. 喜情이 激하면 결과적으로 脾가 收小하게 된다. 脾는 胃의 本이 되기 때문에 胃기능이 저하되게 된다. 胃는 停蓄기능을 하고 寒熱溫涼 四氣 가운데 熱과 관계가 있다. 胃受寒裏寒病은 바로 胃의 停蓄과 熱생산에 문제가 온 것이다.

喜情이 촉급하게 되면 喜情에 반대되는 氣를 가진 脾氣를 激하게 하고 脾氣가 자꾸 收小하게 되어 脾小하게 된다. 小한 臟局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喜情에 있고 喜情은 肝局에 해당한다. 胃受寒裏寒病의 일차적인 원인은 肝局에 문제가 있고 더불어 脾小한 문제도 함께 원인이 된다.

胃의 停蓄기능에 문제가 오는 것은 小腸의 消導가 안정치 못해서이다. 小腸의 消導가 안정치 못한 것은 喜情 때문이다. 喜情은 黨與와 상관성이 있다. 性命論에서 黨與는 居處와 居處가 모인 조그만 이익 집단이다. 人倫이 나오는 곳도 여기이다. 黨與는 지금으로 보면 집단이고, 소속감이나 동질의식을 중요시여기는 것이다. 人倫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黨與가 격해지면 집단내의 질서를 우선시하게 되고 다른 집단과 마찰도 심해진다. 편가르기가 많이 있게 된다. 집단내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체계적인 질서를 뜻하고 이것이 너무나 강조되어 상하의 자유스러운 흐름에 경직이 오기 쉽다. 집단과 집단과의 마찰이 심해지면 교류 또한 어려워 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유스러운 교류가 없어지게 되

는 것이다. 즉, 交遇가 약해지고 脾局이 약해지고 胃의 停蓄기능, 熱생산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1) 太陰病

太陰病의 주요한 특징은 泄瀉이다. 太陰病 泄瀉는 下利黃水, 口中和, 無口渴이 少陰病과 차이점이다. 太陰病 泄瀉를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太陰病泄瀉 大腸之泄瀉也 太陰病泄瀉 溫氣逐冷氣之泄瀉也”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大腸’과 ‘溫氣逐冷氣’이다. ‘大腸’은 泄瀉가 나타나는 부위를 뜻하고, ‘溫氣逐冷氣’는 泄瀉의 기전이다. 小腸이 激하면 小腸에서 완만히 消導되지 못하여 涼氣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胃에서 충분히 停蓄되지 못하여 熱을 충분히 생성하여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小腸으로 내려가고 小腸에서도 충분히 消導되지 못하여 涼氣를 충분히 생성하여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大腸으로 내려가게 된다. 즉, 大腸으로 내려올 때까지 水穀이 停蓄되지 못하고, 精氣와 濁氣가 분리되지도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大腸에서 水穀을 완전한 大便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泄瀉가 나타나는 것이다. 下利黃水는 충분히 停蓄, 分別淸濁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口中和, 無口渴은 大腸의 寒氣가 병적이지 않으면서, 胃의 기능도 어느 정도 살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治法은 溫胃降陰이다. 溫胃降陰은 胃의 停蓄능력을 강화시켜 水穀의 충분한 압축과 熱생산을 돕는 것을 뜻한다.

(2) 少陰病

少陰病은 胃의 停蓄기능 약화와 함께 大腸의 寒氣가 강한 것이 함께 오는 것이다.

少陰病은 下利淸水, 口中不和, 口渴이 변증의 요점이다. 胃의 停蓄기능이 안될 뿐만 아니라, 腎局이

커서 大腸의 寒氣 또한 커져서 오는 泄瀉이다. 밥하는 것으로 비유할 때 太陰病이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少陰病은 밥슬자체를 불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것이다. 小腸의 激함이 심하여 胃에 머무르면서 전혀 停蓄이 되지 않고, 더불어 大腸의 寒氣가 커서 위로 쌓여 올라오는 것이다. 脾의 交遇기능이 완전히 꺾인 것과 같다. 때문에 下利淸水하고, 口中不和, 口渴하게 된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陰病泄瀉 胃中之泄瀉也 少陰病泄瀉 冷氣逼溫氣之泄瀉也”라고 하였다. ‘胃’는 泄瀉가 나타나는 부위이고, ‘冷氣逼溫氣之泄瀉’는 少陰病 泄瀉의 기전이다. 交遇하는 능력이 죽어 버린 것이다.

治法은 ‘健脾降陰’이다. 胃의 停蓄기능과 熱생산기능을 본질적으로 돕는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表裏病을 종합하면, 表病은 居處가 완고하여 발생한 것이고 裏病은 交遇가 약해져 발생한 것이다.

7. 少陽人

少陽人은 크게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나누어 진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表裏, 寒熱, 脾胃이다. 少陽人 寒證은 脾, 表를 뜻하고 熱證은 胃, 裏를 뜻한다. 이를 性命論의 내용과 臟局의 大小 결정과정, 臟腑論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脾受寒表寒病

脾受寒表寒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臟局은 大한 脾局, 총괄할 수 있는 증상은 寒證, 病位는 表이다. 大한 臟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性氣인 怒性과 관계가 있다. 怒性이注하면 결과적으로 脾가 大하여지게 된다. 性命論에서 脾에

해당하는 것은 交遇이다. 따라서, 少陽人은 交遇가 활발하다. 脾受寒表寒病은 바로 활발한 交遇로 인해서 발생한다.

(1) 少陽傷風, 結胸

怒性이 "深着"하게 되면 交遇가 활발함을 지나쳐 문제가 오게 된다. 交遇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시장에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팔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된다. 주변 도로도 막히게 된다. 사람만 많았지 거래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즉, 交遇가 너무 활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交遇가 활발하여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나와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交遇만 하려 하고 居處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交遇가 활발하게 되면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문제가 오게 된다.

交遇는 원활한 소통이 관건이다. 예를 들면, 막히는 길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지, 골목길이 아니다.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길은 모두 소통이 많은 길이다. 交遇가 많은 길이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면 그 일대의 교통흐름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少陽人이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금방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陽傷風證을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而 凝聚膈間 膠固因滯之病也. 此證 嘔者 外寒 包裡熱而 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局陰氣 欲降未降而 或降故 寒熱 或往或來也. 口苦 咽乾 目眩 耳聾者 陰氣因滯膈間 欲降未降故 但寒無熱而 至於耳聾也. 口苦 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重證也.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脇滿者 猶輕也 胸滿者 重證也."라 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여 맺히는 것을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寒熱往來는 소통이 되다 안되다 하는 것이다. 腎局의 陰氣가 所陷되었다는 것은 교통량이 너무 많아 출구가 출구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고, 脾局의 陰氣가 所壅되었다는 것은 大路가 막혀버린 것이다. 원인은 두군데 다 있는 것이다.

結胸은 少陽傷風이 진행되어 발생한다. 結胸은 가슴에 맺혔다는 뜻이다. 맺혔다는 것은 막혔다는 것이다. 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막혔다는 것은 흐름이 끊어져 멈춰버린 것이다. 少陰人 鬱狂이 간혀서 답답한 것이라면, 少陽人 結胸은 막혀서 답답한 것이다. 따라서, 둘다 熱證이 나타나야 하나, 少陽人 結胸은 寒證이다. 少陰人 鬱狂은 갇힌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으로 熱證이면서 外熱包裏寒이다. 少陽人 結胸은 交流가 막혀 정지된 것이므로 寒證이면서 外寒包裏熱이다.

交遇 즉 疏通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는 길을 넓혀주고 동시에 출입을 원활히 해주면 된다. 길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출입하는 곳이 잘 못되어 있으면 길은 막히게 마련이다. 交遇가 지나치게 활발하여 정리가 되지 않아 오는 것이므로 交遇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소통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치법은 表陰降氣이다. 表陰은 지나친 교우로 소통되지 못하고 막힌 것을 뜻한다. 降氣는 이곳을 소통시키는 것이다. 交遇 후에 居處로 들여 보내는 것이다.

(2) 亡陰證

亡陰證은 泄瀉가 主證이다. 여기에는 다시 身寒腹痛泄瀉와 身熱腹痛泄瀉가 있다. 身寒腹痛泄瀉는 소통이 막혀서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다. 막혔기 때문에 寒證이 있으면서 泄瀉를 한다. 身熱腹痛泄瀉는 交遇가 지나쳐 居處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계속 交遇가 일어나기 때문에 熱證이 있으면서 泄瀉를 한

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敗陰內遁”, “陰不下降而反爲上升”이라 하고 있다. 少陰人 亡陽證 “敗陽外遁”과 상반된다. 交遇가 지나쳐서 정리가 안되는 것이다. 四象人 변별을 위한 질문 가운데 “일을 벌리기는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편이다”라는 것이 表證과 관제된다. 뒤죽박죽이 되어 헝클어져 버리는 것이다.

치법은 降陰氣利小便이다. 소통을 원활히 해주면서 출구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2) 胃受熱裏熱病

胃受熱裏熱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臟局은 大한 脾局. 총괄할 수 있는 증상은 熱證, 病位는 裏이다. 熱證을 받는 곳은 胃이다.

衰情이 促急하게 되면 衰情에 반대되는 氣를 가진 腎氣를 激하게 하고 腎氣가 자꾸 깎이게 되어 腎小하게 된다. 小한 臟局이 형성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衰情에 있고 衰情은 肺局에 해당한다. 胃受熱裏熱病의 일차적인 원인은 肺局에 문제가 있고 더불어 腎小한 문제도 함께 원인이 된다.

大腸의 下降기능에 문제가 오는 것은 胃脘의 上升이 안정치 못해서이다. 胃脘의 上升이 안정치 못한 것은 衰情 때문이다. 衰情은 事務와 상관성이 있다. 性命論에서 事務는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사사로움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天時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事務이다. 따라서, ‘나’라는 의식이 약해지기 쉽다. ‘나’는 居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事務가 발달하면 항상 일을 찾아 다니고 의무의식이 있고 맡은 일을 잘 한다. 말 그대로 사무적이다.

腎小하면 腎이 본이 되는 大腸에 기능저하가 온다. 大腸의 下降기능과 四氣 가운데 寒氣생성에 문제가 온다. 胃와 大腸의 寒熱 균형이 깨어지고 熱이 우세해 진다. 大한 臟局인 脾局의 裨기능은 항진되

고 小한 臟局인 腎局의 大腸기능은 저하된다. 胃와 大腸간에 있어서 寒熱의 균형, 停蓄之力, 下降之力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胃受熱裏熱病이라 한 것은 大腸의 기능에 문제가 와서 병이 발생한 것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은 寒熱의 균형이 깨져서 胃에서 熱이 우세하기 때문에 胃受熱裏熱病이라 이름한 것이다.

(1) 胸膈熱證, 消渴病

胃受熱裏熱病은 衰情이 促急하여 腎小하게 되고 腎을 本으로 하는 大腸의 기능이 약해져서 오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이라 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胃와 大腸이 水穀 出納의 府庫가 되는 것이다. “出納의 府庫”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出納이란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府庫는 공간을 뜻한다. 府庫에 물건을 넣기 위해서는 府庫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 즉 出하여 비워야 納이 있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胃, 大腸은 水穀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기 위한 공간이며 水穀이 여기에서 잠시 머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胃는 水穀을 받아 들여 잠시 보관하면서 停蓄시킨 다음 내보내고, 大腸은 小腸을 거쳐 내려온 水穀을 받아 잠시 보관하면서 밖으로 내보낸다.(下降)

胸膈熱證은 上消와 中消에 해당한다. 上消는 衰情이 激하여 胃脘의 上升之氣에 문제가 온 것이다. 이를 《東醫壽世保元》에서 “胃局清陽 上升而不快足於頭面四肢則 成上消病”라 하였다. 肺局의 기운이 激하여 멀리 퍼지지 맏히게 되어 胃에 정체된다. 따라서, 胃局에서 그 상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中消는 衰情이 激하여 腎益削하여 大腸에까지 문제가 온 것이다. 이를 《東醫壽世保元》에서 “大腸局清陽 上升而不快足於胃局則 成中消病”라 하였다. 腎小하여 腎을 本으로 하는 大腸에까지 문제가 온 것이다.

臟腑論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胃와 大腸은 寒熱, 升降, 水穀 出納을 조절하는 腑에 해당한다. 上消와 中消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清陽'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東武 선생은 《東醫壽世保元》에서 "清陽"을 "平心靜思則 陽氣上升 輕清而 充足於頭面四肢也 此 元氣也 清陽也. 勞心焦思則 陽氣下陷 重濁而 鬱熱於頭面四肢也 此 火氣也 耗陽也"라 하여 情氣가 激하지 않고 안정되어 寒熱의 升降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情氣가 激하여 勞心焦思하게 되면 寒熱의 升降이 이루어지지 않고 熱上寒下하게 되어 重濁한 熱이 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元氣가 병적인 火氣로 바뀌어 버리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이렇게 消渴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治病에 있어서도 "寬闊其心 不宜 膠小其心 寬闊則 所欲必緩 清陽上達"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것은 《東醫壽世保元·太陽人 內舐小腸病論》에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다. "少陽人 大腸 出水穀 陰寒之氣 不足則 胃中 納水穀 陽熱之氣 必盛也"

上消, 中消, 下消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上消에서의 熱證은 胃局에서 頭面四肢로 상승하여 퍼지지 못한 清陽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上焦에 重濁한 火氣가 있어 大渴引飲하고 胸中煩躁하게 된다.

中消에서의 熱證은 大腸局에서 胃局으로 상승하지 못한 清陽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中焦(中上焦, 中下焦)에 重濁한 火氣가 있어 消穀善飢 飲食倍常 不生肌肉하게 된다.

下消에서의 熱證은 大腸局에서 아예 상승하지 못하고 울결되어 있는 清陽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下焦에 重濁한 火氣가 있어 飲水不多 小便多而濁하게 된다.

이것을 종합하면 억울된 情氣로 인해 寒熱 升降의 縱인 순환이 깨어지면서 생리적인 熱氣가 병적인 火氣로 바뀌어 나타나며, 重濁한 火氣가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病證이 나뉘어 진다.

이것을 촛불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촛불을 그냥 두면 심 아래부위에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 타 들어가고 촛불 위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생성된다.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생기고 아래에는 차가운 공기가 생겨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이 생성된다. 하지만 촛불위에 상자를 덮어 두면 촛불의 열기로 인해서 공기는 계속 데워지고 데워진 공기는 덮고 있는 상자로 인해서 멀리 퍼지지 못한다. 더불어 아래 차가운 공기의 유입이 힘들어지고 상자로 덮혀 있는 공간의 공기는 흐름이 없이 데워지지만 한다. 결과적으로 촛불은 약해지게 된다. 예사람이 촛불에 갓을 씌울 때 위를 막지 않고 뚫어 놓은 이치도 이와 같다. 消渴病은 바로 자신이 만든 熱氣가 순환되지 못하고 병적으로 重濁한 火氣가 바뀌므로서 발생되는 것이다.

8. 太陰人

太陰人은 크게 胃脘受寒表寒病과 肝受熱裏熱病으로 나누어 진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表裏, 寒熱, 胃脘, 肝이다. 太陰人 寒證은 胃脘, 表를 뜻하고 熱證은 肝, 裏를 뜻한다 이를 性命論의 내용과 臟局의 大小결정과정, 臟腑論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胃脘受寒表寒病論

胃脘受寒表寒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臟局은 小한 肺局, 총괄할 수 있는 증상

을 寒證, 病位는 表이다. 小한 臟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情氣인 樂情과 일차적인 관계가 있다. 樂情이 激하면 반대되는 氣를 가지고 있는 肺가 깎여 작아지고 肺에 本을 두고 있는 胃脘의 기능이 약해지게 된다.

樂情이 促急하게 되면 樂情에 반대되는 氣를 가진 肺氣를 激하게 하고 肺氣가 자주 깎이게 되어 肺小하게 된다. 肺小하게 되면 肺을 本을 두고 있는 胃脘의 기능이 약하게 된다. 樂情은 居處가 激해서 오는 것이다. '나'가 激해지면 事務는 당연히 등한시되어진다.

胃와 大腸은 寒熱, 升降, 水穀 出納과 관계가 있다. 반면에 胃脘, 小腸은 燥濕(寒熱), 緩束, 氣液 呼吸과 관계가 있다. 呼吸은 聚散작용이다. 따라서, 呼散之氣, 吸聚之氣라 한다. 胃脘에서는 胃에서 만들어진 熱氣에서 輕淸한 溫氣를 밖으로 퍼뜨리는 작용을 한다. 溫氣와 涼氣의 本은 水穀이 아니고 氣液이다. 臟腑論에서 설명하였듯이 氣液은 水穀에서 변화된 형태이다.

胃脘의 呼散之氣가 불리하면 溫氣를 모아서 바깥으로 펼칠 수가 없게 된다. 溫氣가 바깥으로 고루 퍼지지 못하여 表에서 寒證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도가 있다. 溫氣가 잘퍼지지 못하는 첫단계와 퍼지지 못한 溫氣가 식어서 濕이 되는 과정이다.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 처방구성약물가운데 宣通, 治濕하는 약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더불어 溫熱의 性을 갖는 약물이 거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래서 氣液은 進退가 관건이라고 《東醫壽世保元·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 나온다. 《東醫壽世保元·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에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 表局虛薄 不勝寒而 外被寒邪所圍 正邪相爭之形勢 客勝主弱”라 하여, 情氣(勞心焦思)로 인하여 胃脘의 呼散之氣가 약하여 바깥의 寒氣를 이

기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呼散之氣가 바깥으로 펼쳐지면서 汗出하게 된다. 無汗일 때 사용하는 麻黃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寒證의 대표적인 또다른 증상은 泄瀉이다. 太陰人이 泄瀉하는 것은 少陰人, 少陽人과 또 다르다. 胃脘의 上升之氣가 부족하여 胃의 熱氣에서 輕淸한 기운이 溫氣로 올라가서 퍼지지 못하고 그대로 小腸으로 내려가게 된다. 小腸에서는 胃에서 한번 걸러진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熱氣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혼탁한 水穀之氣 때문에 小腸부위인 臍部에서 가스가 많이 차게 된다. 太陰調胃湯이나 調胃升淸湯에 있는 乾栗, 薏苡仁은 바로 祛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淸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溫熱이 구분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주는 것이다.

2) 肝受熱裏熱病

肝受熱裏熱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臟局은 大한 肝局, 총괄할 수 있는 증상은 熱證, 病位는 裏이다. 大한 臟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性氣인 喜性과 관계가 있다. 喜性이 注하면 결과적으로 肝이 大하여진다. 性命論에서 肝에 해당하는 것은 黨與이다. 따라서, 黨與의 결속력이 크다. 肝受熱裏熱病은 바로 결속력이 큰 黨與로 인해서 발생한다.

黨與의 결속력이 크기 때문에 小腸에서 吸聚한 液이 돌지 못하고 정체하게 된다. 液은 순환을 거쳐 小便으로 배설되어야 한다. 이것은 肝小한 太陽人은 完實無病이 '小便旺多'인 것으로 알 수 있다. 肝局에서 결속력이 크기 때문에 液이 멎어서 熱이 나타나게 된다. 멎은 液은 濕의 속성을 띄기 쉽다. 따라서, 肝受熱裏熱病에서 熱은 少陽人 胃受熱裏熱病에서의 熱과는 그 本이 다르다. 濕熱의 속성이 많다. 따라

서, 肝受熱裏熱病 처방구성약물 가운데 治濕하는 약물이 많으면서도 淸熱하는 약물이 많지 않은 것이다.

肝局의 결속력이 강하여 뭉쳐 있기 때문에 熱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좁은 곳에 뭉뭉히 모여 있는 형국과도 같다. 肝受熱裏熱病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인 便秘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에서 내려온 水穀이 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小腸에 묵여 있는 것이다. 便秘라 하더라도 少陰人, 少陽人이 그 기전이 다르도 便秘가 있는 부위도 다르다. 따라서, 치료도 다르고 이루어 지는 것이다.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黨與를 선호하는 것이다. 少陽人이 일을 우선한다면, 太陰人은 모임을 우선한다. 가령, 少陽人은 공부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다면, 太陰人은 모였으니까 모임의 결속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를 한다. 이것은 四象人 변별 질문사항에서 “동아리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자주 나가십니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太陰人은 喜性이 발달하고 黨與에 능한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더불어 黨與를 구성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長’을 하는 사람도 많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이 그대로 便秘나 熱證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을 통해서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였다. 이것은 東武 선생의 事心身物 정신과 이것을 의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 臟局의 大小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性情의 편차이다. 그리고 이것은 四象人 별로 독특한 性情의 경향성을 갖게 하고 이후에 생리적, 병리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불어, 四象人 변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근거가 된다.
3. 臟腑論을 살펴본 결과, 인체에 寒熱溫涼, 升降緩束 四氣의 작용에 구분이 있음을 알았다. 少陰人和 少陽人은 水穀·寒熱·升降·胃·大腸과 관련이 있고, 太陰人은 氣液·燥濕·緩束·胃脘·小腸과 관련이 있었다.
4. 四象人별로 나타나는 病證은 性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이것으로 喜怒哀樂 性情이 곧 病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논증을 통해 性情과 病證의 일관성을 밝혀 보고 싶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향후에는 四象人 변별을 위한 體型氣象, 容貌詞氣의 특징과 性情과의 상관성을 주제로 삼아 연구해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麗江出版社, 1992, 서울.
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서울.